

100번째 전해진 반가운 문화소식

‘광주아트가이드’ 100호 발간
창간 9년...4500부 무료 배포
작가 100인 초대 기념전시도



문화 예술 정보지 ‘광주아트가이드’(사진) 발행인 서동환(48)씨는 서울 인사동에 갈 때마다 부러워 했다. 서울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행사 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관광객들에 도움이 되는 근사한 길라잡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전시 정보가 담긴 이 작은 책자 하나면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최상의 정보를 빠른 시간에 얻어 보고 싶었던 전시를 쉽게 관람할 수 있어 너무나 유용했다. 바로 ‘서울아트가이드’다.

광주에도 이런 정보지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서씨는 문화예술계 인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고민에 들어갔다. 답은 비판적이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경제적 여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들이었다. 조선대에서 시작되자



‘광주아트가이드’ 발행인 서동환(왼쪽)씨와 편집위원 박진현씨.

인을 전공한 서씨는 인구 대비 문화 인력이 가장 많은 지역 상황, 특히 화가들이 많은 도시지만 자기 작품 활동하는 데만 열심이지 전시 홍보 등에는 문화한인 지역 작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일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다.

2009년 10월 준비호가, 그해 12월 창간호가 나온 무가지 ‘광주아트가이드’가 3월호로 100호를 발행했다. 8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광주아트가이드’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소식지로 자리매김했다. “90%가 금방 망할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척박했던 환경에서 피워낸 꽃이다.

처음 16페이지에서 시작한 잡지는 40여

페이지로 늘어났고, 발행부수도 2000부에서 4500부로 증가했다. 콘텐츠는 지금도 미술 관련 비중이 높지만 공연 등까지 아우르며 변화를 모색해 왔다. 현재는 김병현·김태균·소나영·정수영·정재경·조아름씨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며 생생한 문화 현장 정보와 답문 등을 생산하고 있다.

“처음에 시작할 때 3년만 해보자 했는데 100호까지 발행했네요. 각 갤러리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서 정보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지원금이 의존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하려고 애썼어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붙잡을 수 있는 콘텐츠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간호부터 그와 함께한 이는 대학 선배로 이제는 든든한 동지가 된 박진현(56·전생각상자 갤러리 관장·소설가)씨다. 현재도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박씨는 잡지의 간판 코너인 ‘작가 탐방’을 진행하며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제가 맡고 있는 ‘작가 탐방’은 많이 알려진 이들보다는 열심히 작업하는 작가들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토닥토닥 응원해주는 거죠. 저희 잡지가 자연스레 지역 작가들의 이야기비가 되는 것 같아요. 작가들의 시대정신, 철학, 삶의 저장소 역할도 하구요.”

1주년, 5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했던 ‘광주아트가이드’는 100호 발간을 기념해 ‘작가 탐방’에 등장했던 100명의 작가 이야기를 모은 ‘글이 된 그림들’(가제)을 발간하고 100인 초대전도 열 계획이다.

“아직도 갤러리 문턱이 높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잡지를 접한 이들이 나도 갤러리에 한 번 보고 싶단. 문화 현장을 찾고 싶단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좀 더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서동환)

현재 ‘광주아트가이드’는 종이 잡지 이외에도 스마트폰에서 e북 형태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해 많은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꿈을 꾸고 있다. 잡지는 지역 문화 공간에 들르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박진현의 문화카레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Y씨(75)는 일주일에 한번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자원봉사를 떠났다. 박물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문화해설을 하기 위해서다. 36년간의 교직생활을 마친 후 험 험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황혼의 외출’이었다.

Y씨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박물관 투어를 진행하려던 늦어도 새벽 5시에는 집을 나와 서울행 기차를 타야 했다.

하지만 기차 안에서 그는 정작 마음이 더 바빠졌다. 관광객들에게 충실한 설명을 하려면 박물관의 역사와 소장품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야

자주 구입했는데 친구로부터 ‘홈에이드 쿠키’를 선물 받은 후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 마침 광주 YWCA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쿠키 만들기 강좌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수강등록을 마친 그녀는 얼마 전부터 아이들에게 수제과자와 케이크로 간식을 챙기고 있다. 레시피에 맞춰 반죽을 하고 오븐에 굽기까지 조금은 더딘 과정이지만 그녀는 예상치 못한 행복을 얻었다. 아이들과 식탁에 마주 앉아 과자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고 했다. 자신이 만든 쿠키를 맛있게 먹는

당신의 ‘리틀 포레스트’는?

하기 때문이다. 평소 ‘공부’를 하지 않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탓에 연도나 이름이 자주 헷갈렸다. 그러나 기차 안에서 잠시라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Y씨가 ‘사서 고생한’ 이유는 ‘졸거움’ 때문이다. 비록 몸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좋아하는 미술품과 유물을 관광객들과 함께 관람하는 일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그것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미술품들이 아닌가.

하지만 수년 전부터 기억이 쇠약해지자 그는 ‘서울행’ 대신 국립광주박물관으로 행선지를 옮겼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 문화해설사라는 직함은 그대로다. 매주 목요일 박물관으로 ‘출근해’ 방문객들에게 소장품과 전시회를 설명하며 ‘화려한 노후’를 즐기고 있다. 얼마 전에

소만 바퀴였을 뿐 문화해설사라는 직함은 그대로다. 매주 목요일 박물관으로 ‘출근해’ 방문객들에게 소장품과 전시회를 설명하며 ‘화려한 노후’를 즐기고 있다. 얼마 전에 예술을 사랑하는 지인들과 함께 미술관 모임을 만들어 국내외 미술관을 답사하기도 한다.

30대 맞벌이 주부인 후배 K는 요즘 쿠키 만들기에 푹 빠져 있다.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패스트푸드를

아이들의 환한 표정을 보면 일주일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 같다.

후배의 ‘자랑’을 듣는 순간, 얼마 전 관람했던 영화 ‘리틀 포레스트’(little forest)가 스쳐 지나갔다. 일

본작가의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는 도시의 고단한 삶에 지쳐 황폐해진 젊은 여주인공이 고향으로 돌아와 채소와 과일을 직접 재배하고 동네 친구와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마음의 치유를 하게 된다는 줄거리다.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없지만 스크린 가득 펼쳐지는 자연 풍경과 소박한 밥상은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 마치 행복은 거창하지 않은, 아주 소소한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듯 했다.

바야흐로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의 시대. 올해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일상의 작은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자. 때론 따뜻한 커피 한잔이, 사무실 책상 위 예쁜 화분이 당신의 ‘리틀 포레스트’일지 모르니.

(재직국장·문화선임기자)

인터파크도서 ‘청소년 독후감 대회’ 8월까지 모집

인터파크도서가 학교 도서관 지원을 위한 ‘제 12회 전국 청소년 독후감 대회’를 오는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공모방법은 34종의 지정도서 중 1권 이상을 읽고 200자 원고지 8매 내외 분량의 독후감을 5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메일(bookreview@interpark.com)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양식은 인터파크도서 해당 이벤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수상자는 오는 9월 20일 인터파크 도서 및 직접독서 홈페이지, 청소년 출판모임 카페 공지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시상부문은 개인 우수상(34명), 최다 독후감 응모학교(4개 학교), 우수 독후감 선정학교(중·고등학교 각 3개 학교), 지도 교사상(5명)이다. 문의 02-6004-7741. /박성천기자 skypark@

쓰디 쓴 남성 권력

황은덕 소설집 ‘우리들, 킴’ 발간

황은덕 소설가가 두 번째 작품집 ‘우리들, 킴’(산지니·사진)을 펴냈다. 무안에서 태어나 광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작가는 이후 서울과 미국에서 각각 방송작가와 시간강사로 일하며 생활했다. 현재는 부산에서 거주하며 부산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다양한 경험과 경계를 넘은 다채로운 활동은 작품에 특유의 분위기를 선사한다.



성, 불륜, 일부이 처제와 같은 남성의 권력에서 기인된 이야기들이 형상화 돼 있다. 황 작가는 ‘작가의 말’에

이번 작품집에서 작가는 입양이라는 소재를 매개로 사회구조와 남성 중심의 권력을 면밀히 들여다본다. 표제작 ‘우리들, 킴’에 대해 이경 한국국제대 교수는 “버림과 선택의 대상이라는 ‘입양아’의 수동적 위치를 벗어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한편 입양에 이르는 ‘엄마’들의 상황과 맥락을 제시한다”고 평한다.

이밖에 ‘글로리아’, ‘해변의 여인’, ‘열한 번째 아이’, ‘불안은 영혼을’, ‘환대’ 등의 작품에도 남성의 이중

서 “소설을 쓰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서 무척 다행이다. 한없이 더딘 발견이지만 소설을 써 나가는 동안 조금씩 더 나은 사람, 더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황 작가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했으며 2000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소설집 ‘한국어 수업’과 번역서 ‘한나 아렌트와 마틴 하이데거’를 펴냈고 제17회 부산소설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봄은 국악을 타고...24일 도립국악단 음악회



전남도립국악단 관현악 중무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유장영)이 오는 24일 오후 5시 남도소리유희터 공연장에서 새봄맞이 기획공연 신춘음악회 ‘춘색만당’을 연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봄기운 봄내음 한 가득 하다’라는 뜻의 ‘춘색만당(春色滿堂)’이다. 국악관현악과 가야금병창, 무용, 타악, 기악연주 등 다양한 협연 무대로 꾸며진다.

첫 번째 무대는 근대에 창작한 궁중 풍의 군무로 장중하면서도 화려한 춤사위가 돋보이는 ‘태평성대’로 문을 연다. 이어 김계국 가야금 명인이 북한 개량

악기 육류금 협주곡 ‘황금산의 백도라지’ 무대를 선보이며 시대 창곡 ‘당신의 의미’ 중 ‘이별의 종정’ 등을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 관현악곡 ‘대바람 소리’, 가야금병창 협주곡 ‘심정가’ 중 ‘황성 울리기는 대목’ 등을 준비했다. 마지막 무대는 봄 색채를 깨우는 듯한 국악관현악의 웅장한 선율과 남도 풍물가락이 어우러진 설창곡 협주곡 ‘소나기’로 마무리한다.

관람료 성인 1만 원, 대학생 및 단체 7000원, 학생 5000원. 문의 061-285-6928.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3월호

2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폐교들 깨어나다

- 공연 아지트 작은 박물관 등 폐교들의 행복한 변신
- 아버지 뜻 이어 폐교에 피운 예술꽃, 고흥 남포미술관
- 정부,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 마련

기획·사진으로 되돌아본 2018평창동계올림픽
하나된 열정, 눈처럼 빛났다

동네 책방에 빠지다-책방별곡
서점의 안목과 단골들의 리뷰로 성장한 영국 독립서점 돈트북스

노중운의 꿈의 여행
그림 같은 풍경을 담아내다 프랑스 프랑방스

여행이 만난 이 사람
파리생활 후 광주 활동 시작한 패션디자이너 황미나
고교, 군대, 프랑까지 함께 KIA철전 임기영, 김운동

광주시향상임지휘자 김홍재

“지휘는 감동의 순간을 창조하는 것”

기획·광주출판리대시(3) 푸른길 열매
패션의 생태·문화적 부활 촉매 역할

공립미술관의 길을 본다 -에필로그
문장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5
문학으로 시대의 어둠 겨는 저항시인의 자취
조태일시문학관
정문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
진실에 '충분히 가까이' 다가간 카메라, 카파·vs·나트렐이

트렌드 따라잡기
성공 요인 배워 도약의 시간 열자
디지털 허기 채우는 아날로그 문방구

해당수상부 공동 기획 한국 국가여행 1
관광지로 사랑받는 동해안권 국가여행들
새봄 이야기 '인도어 가드닝'으로 반려식물과 함께 싱그러움맞이

우주의 신비 활짝 열린 고흥·高興
맑게 깨어난 감성 체험